

결국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다

-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 속의 그리스 로마 신화

영어영문학과 2011***** 정소영

<목차>

1. 서론
2. 『신』 속의 그리스 로마 신화
 - (1) 『신』의 소개와 줄거리
 - (2) 『신』과 『변신이야기』 비교
 - 2-1. 아프로디테
 - 2-2. 제우스
 - 2-3. 스팅크스
 - 2-4. 헤르마프로디토스
3. 결론

1. 서론

세계에는 여러 신화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신화는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를 담은 문학 작품, 예술 작품 들은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다. 이런 문학작품, 예술 작품 속의 그리스 로마 신화의 모습은 기존 그대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변형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대 문학작품 중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에 나타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모습과, 그들이 소설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 모습과 의미들이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에서 나타난 모습과 어떻게 비슷하고 다르게 변형 되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의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소설 속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차용함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자 하였는지를 생각해볼 것이다.

2. 『신』 속의 그리스 로마 신화

(1) 『신』의 소개와 줄거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전 6권으로 구성 된 『신』을 세상에 내놓으며 세계적으로 큰 반응을 얻었고, 그 반응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신』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전에 출간한 『타나토노트』로 시작하여 『천사들의 제국』, 그리고 『신』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다. 세 작품 다 미카엘 팽송이 주인공이며, 그의 여러 차례의 인생과 『타나토노트』에서부터 시작한 긴 모험이 결국 『신』에서 마무리 지어진다.

『신』의 주요 줄거리는 신이 되기 위해 뽑힌 신 후보생들이 신들의 도시 올림피아에서 경쟁을 벌이는 내용이다. 미카엘 팽송은 『천사들의 제국』에서 천사의 임무를 다 한 후, 천사의 세계를 빠져나와 신이 되기 위한 후보생이 되어 ‘아에덴’ 섬에 떨어진다. 아에덴 섬의 도성은 ‘올림푸스’이다. 이 올림푸스에서 144명의 신 후보생들은 신이 되기 위해 경쟁한다. 올림푸스에는 이 신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신들이 학교가 있으며, 12명의 스승 신들이 그들을 가르친다. 신들의 학교에서는 신 후보생들이 ‘제 몇호 지구’ 라는 번호를 갖고 있는 지구들을 갖고 원시 시대부터 각자 자신의 부족을 맡아 그들의 신이 되어 경쟁한다. 최후에 살아남는 부족의 신이 승자가 되는 방식이다. 각 스승 신들이 수업을 하고 난 후, 그 수업에서의 좋은 결과를 낸 후보생과 그렇지 못한 후보생이 뽑힌다. 그렇지 못한 후보생은 신 후보생의 자격을 박탈당한다. 그러던 중, 아에덴에서 ‘살신자’가 등장한다. 각 수업에서 좋은 결과를 낸 후보생들을 죽이는 자가 나타난 것이다. 즉, ‘신을 죽이는 자’가 등장한 것이다. 그 와중에, 주인공 미카엘 팽송과 그 주인공들은 올림푸스에 있는 산의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 매일 밤마다 위험한 모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미카엘 팽송은 결국 산꼭대기의 ‘최고 신’을 만나게 되지만 그로부터 ‘최고 신’ 보다 더 ‘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2) 『신』과 『변신이야기』 비교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신』에서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의 세피로트 개념을 아라비아 숫자에 적용하여 자기 나름의 세피로트를 만들어 내었다. 이를 통해 『신』에서는 각 숫자들로 생명과 의식이 나아가는 단계를 잘 보여준다.¹⁾ 각 숫자의 생김새를 통해 의미를 부여한다. 곡선은 사랑을 나타내고, 교차점은 시련을 나타내며, 가로줄은 속박을 나타낸다.

<1>은 광물이다. <2>는 식물이다. <3>은 동물이다. <4>는 인간이다. <5>는 깨달은 인간이다.
<6>은 천사이다.

...

<7>은 신의 후보생이다. <5>와 마찬가지로 이 숫자에는 하늘에 매여 있음을 나타내는 가로줄이 있다. 하지만 아래쪽에는 곡선 대신 세로줄이 있다. 아래쪽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이 단계에 오른 존재는 더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가기 위해 무언가를 이루어 내야 한다.

『신』 1권, 49~51쪽

이런 상징체계를 통해 본다면, <8>은 신일까? 그렇지 않다. <7>은 좀 더 세분화 된 단계로 나타난다. <7.1>은 다시 신 후보생으로, <7.3>은 아에덴의 괴물(신 후보생이 탈락되면 켄타우로스 등의 괴물로 변하게 된다)로, <7.5>는 보조 강사(시시포스 등)들로, <7.7>는 스승 신(아테네, 아레스 등)들로 세분화 된다. 그렇다면 <8>의 존재는 무엇일까? 미카엘 팽송이 그렇게

1) 세피로트는 케테르에서 말쿠트에 이르는 열 개의 세피라(<셈> 또는 <수>라는 뜻)로 이루어진다. 이는 창조주의 에너지가 발현되는 열 가지 방식과 창조의 각 단계를 나타낸다.

찾던 올림푸스 산꼭대기 위의 최고 신 제우스이다. 8이라는 숫자를 옆으로 누이면 무한대 기호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우스는 자신 위의 <9>의 존재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9>가 창조주이며, 인간과 신들을 자기 모습대로 창조했다고 믿는다고 한다. 또한 <9>의 존재는 신 후보생을 뽑아 경쟁을 시키도록 제우스에게 명령한 존재이기도 하다. 이 <9>의 존재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신』속의 그리스 로마 신화와 『변신이야기』 신화의 가장 큰 다른 점이다.

『변신이야기』 속에서도 제우스가 최고신이긴 하지만, 조물주 신은 따로 있다는 점은 같다. 카오스가 자연이라는 조물주 신으로부터 정리되어 세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물주 신은 그 이후로 모습을 들어 내지 않는다. 그에 대한 언급도 더 이상 『변신이야기』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신』에서 <9>의 존재는 여전히 존재하여, 제우스에게 명령을 내린다. 이 <9>라는 존재가 존재함으로써 『신』의 결말이 오비디우스가 『변신이야기』를 통해 하고자 했던 말과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신』속의 그리스 로마 신들의 모습은 『변신이야기』의 신들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 신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 로마의 캐릭터들의 모습 또한 비슷한 성격과 역할을 갖고 있다. 이들은 미카엘 팽송이 제우스를 거쳐 <9>의 존재에 다다르기 위한 과정에 등장하는데, 그 과정에서 각자의 캐릭터들은 주인공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 등장하기도 하고, 시련의 존재로 등장하기도 한다. 디오니소스, 헤파이스토스, 포세이돈, 아레스, 헤르메스 등 여러 신들과 세이렌, 프로메테우스, 시시포스 등 여러 등장인물들이 등장한다. 그 중 주인공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아프로디테, 제우스와 새롭게 변형된 캐릭터인 스팅크스, 헤르마프로디토스를 『변신이야기』와 비교해 살펴볼 것이다.

2-1. 아프로디테

살펴볼 신 등장인물들 중 첫 번째로, 아프로디테는 『신』에 등장하는 신들 중 가장 중요한 신이다. 주인공인 미카엘 팽송의 동료가 되어 마지막엔 <9>의 존재에 함께 다다르기 때문이다. 미카엘 팽송과 아프로디테의 중요한 관계는 이미 주인공이 아프로디테를 만나기 전부터 암시되어 있다.

까닭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이름 가운데 오직 하나가 내 마음에 긴 여운을 남겼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아테나 여신은 분명 그 이름을 말했다. 나는 마치 내가 잘 아는 존재의 이름이 불린 듯한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아프로디테가 내 과거 혹은 미래의 가족에 속하기라도 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신』 1권, 62쪽

이렇듯, 주인공은 아테나가 스승 신 12명의 이름을 말하며 소개해 주는 장면에서 아프로디테의 이름만 들었을 뿐인데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며 아프로디테가 『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암시한다. 아프로디테는 또한 소설 속에서 기존 그리스 로마신화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등장 하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다.

불현 듯 하늘에서 아프로디테가 나타난다. 백 마리의 비둘기와 멧비둘기가 끄는 수레에 올라탄 모습이 화려하기 그지없다. 여신의 뒤에 떠 있는 붉은 태양이 눈부신 실루엣을 더욱 두드러져 보이게 한다.

『신』 2권, 448쪽

미카엘 팽송은 이런 아프로디테를 보고 사랑에 빠진다. 아프로디테는 그런 주인공에게 여러 도움을 주기도 하고, 시험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소설 후반부에는 주인공은 다른 진정한 사랑을 찾고, 아프로디테가 오히려 주인공을 사랑하게 된다. 『신』 속의 아프로디테는 자신을 사

량하지 않는 남자를 만난 적 없었지만, 주인공이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되자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소설에서는 그녀의 감춰진 욕망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표현되었다.

소설의 후반부에 가면, 올림푸스에서는 매우 큰 싸움이 벌어진다. 창조신인 <9>가 더 이상 신 후보생을 뽑는 모든 것을 중단 하겠다고 제우스에게 말했다기 때문이다. 이런 소식을 제우스가 다른 모든 올림푸스에 있는 신들과 신 후보생에게 전달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는 즉 아에덴 섬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신이 아에덴의 전 주민에게 부여한 불멸성을 회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림푸스의 모든 신들은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게 된다. 이에 신들은 두 파로 나누어져 싸운다. 아레스에 동조한 <항쟁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9>의 존재와 직접 얘기하여 해결하자고 했고, 아테네에 동조한 <충성파>는 제우스와 그 위의 위대한 창조신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에 싸움이 커져 결국 아테네는 아레스에게 죽게 된다. 소설 속에서 신들의 불멸성이 사라지는 것 또한 『변신이야기』 속의 그리스 로마 신화와 매우 큰 다른 점이다. 불멸성이 사라진 것과 신화 속 아프로디테의 기존의 캐릭터가 더해져 재밌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로 아프로디테가 얼굴에서 주름살을 발견하여 큰 충격을 받는 장면이다. 작가의 새로운 생각과 기존의 그리스 로마 신화와 합쳐진 재밌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2-2. 제우스

다음으로는 살펴볼 신은 제우스이다. 제우스는 『변신이야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에서도 신들 중 최고신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가장 큰 다른 점은 『변신이야기』에서와는 다르게 『신』에서는 제우스가 모습을 잘 들어 내지 않는 신이라는 것이다. 다른 스승 신들도 제우스의 모습은 잘 보지 못했으며, 실제로 제우스는 소설 속에서 주인공인 미카엘 팽송이 독대를 한 장면 외에, <9>의 존재가 모든 것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을 때 처음으로 올림푸스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소설 속의 제우스의 모습은 기존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묘사된 모습과 똑같이 묘사된다. 소설 중반부에 주인공이 올림푸스 산꼭대기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동료들과 모험을 하지만, 결국에는 혼자 제우스를 만나게 된다.

드디어 나는 올림포스의 왕을 마주하고 있다. 무엇보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모습이 내가 상상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키가 10미터는 될 법한 거구의 신이 황금 옥좌에 앉아 있다. 희고 구불구불한 수염이 왕을 상징하는 백합 문양을 연상시킨다. 수염만큼이나 새하얀 머리가 사자 같기처럼 어깨 위로 치렁치렁 늘어져 있다. 넓고 조금 튀어나온 이마에는 자그마한 청색 다이아몬드를 박은 금빛 띠를 두르고 있다. 살갗은 아주 희다. 아주 크고 근육이 울근불근한 손에는 시퍼런 정맥이 드러나 있다. 오른손에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쥐고 있는데 마치 전기가 통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이따금 불꽃이 번쩍인다. 왼손에는 구체를 들고 있고 그 위에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다. 금실로 지은 토가는 복잡한 주름을 이루며 어깨에서 흘러내려 무릎을 감싸고 있다. 발목과 아랫다리에는 황금 샌들의 가죽끈이 칭칭 감겨 있는데, 이 끈에도 작은 청색 다이아몬드들이 박혀 있다.

『신』 4권, 608쪽

또한 주인공과 제우스의 대화에서는 제우스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아이 같기도 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도 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이 점이 『변신이야기』의 당당하고 권위 있는 제우스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이다.

「나가.」

세상에, <그>가 나를 바라보았고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는가. 그의 목소리가 누그러진다.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야? 나가라고 했잖아. 네가 여기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돌아가서 네 친구들과 게임이나 계속해.」

다리가 후들거린다. 하지만 나는 발길을 돌리지 않는다. 그의 눈빛에는 짜증 난 기색이 역력하다.

「나가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혼자 있고 싶어.」

『신』 4권, 608~609쪽

이렇듯 위엄 있는 모습만이 아니라, 자신은 혼자 있고 싶다는 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이 소설의 결말과 매우 큰 관련이 있는 발언은 하는데, 여기에서도 『변신이야기』와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신화를 지어낸 것도 인간이야. 그들은 전혀 모고 있겠지만,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맞춰 내 차림새를 바꿨어. 인간이 오시리스를 만들어 냈을 때 나는 오시리스였어. 그들이 길가메시를 만들어 냈을 때 나는 길가메시였어. ... 그들이 제우스를 지어냈을 때 난 제우스가 되었어. 인간은 자기들의 모습을 신들에게 빌려주었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신들을 만들어 냈어. 결국 인간이 자기들의 모습으로 신을 창조한 셈이야.」

『신』 4권, 639쪽

우리는 신이 인간을 창조 할 때 자신들의 모습을 모방하여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에서 제우스는 인간을 만드는 과정이 외모부터 생식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정교하고 힘든 과정이었음을 설명한다. 여기서 주인공은 제우스가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어떻게 그 자신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진다. 이에 대한 답으로 제우스는 자신이 인간을 다 만들고 나니, 아주 훌륭해서 자신도 그 형상을 취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처음에 ‘아무 형상도 없었다’고 대답한다. 신이 자신의 피조물을 모방한 것이라고, 인간이 스스로 창조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자신의 피조물의 창조물을 모방했다고 한다. 의상도, 궁전도, 여러 가지 감정과 성향들도 말이다. 신이 인간의 훌륭함을 인정하고, 이를 모방하였다는 것이 또한 『변신이야기』와 다른 점이다. 『변신이야기』의 여러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장면 중하나, 인간이 신과 같아지려고 할 때, 신을 숭배하지 않을 때 신이 인간에게 벌을 주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속에서 인간은 전혀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다. 이 큰 차이점은 결국 결말과, <9>의 존재와 연관된다.

제우스와 만남 후, 주인공은 결국 올림포스 산 뒤에 더 높은 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소설 속에서는 이를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표현하였다.

이런 것을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나는 아연실색하여 뒤로 물러선다.

조금 열린 안개 사이로 그것이 보인다. 산이다.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산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줄 알았더니 겨우 산 중턱에 다다른 것이다.

「미안해.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다른 신들이나 후보생들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에덴 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고 제우스는 <궁국의 신>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 역시 밤마다 저 꼭대기를 올려다봐. 그러면서 혼자 묻지. 저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고 말이야.」

「내가 거짓말을 했어. 난 아냐. 창조주가 아니라고. 나는 올림포스 신들의 왕 제우스일 뿐이야. <8>에 해당하는 무한한 존재이긴 하나 내 위에는 <9>에 해당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

『신』 4권, 679~680쪽

제우스는 <9>의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도 그 신을 ‘믿고 있다’라고 표현 한다. 앞에서 언급 했듯이, 이 점이 『신』이 『오비디우스』와는 다른 가장 큰 부분이다.

또한, 『신』에서는 주인공에게 시련을 주는 신이 아닌 캐릭터 들 중 스팅크스와 헤르마프로디토스가 『오비디우스』와 다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2-3. 스팅크스

스핑크스는 신화와 비슷하게 주인공에게 수수께끼를 내며 시련을 주는 존재로 나타난다. 기존 신화에서는 오이디푸스가 괴물 스팅크스를 처치한 공로로 테베 왕이 되지만, 『신』에서는 미카엘 팽송이 스팅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고 제우스에게 가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신화와 가장 다르게 변형된 점은 바로 스팅크스의 모습이다.

누가 통로의 입구를 지키고 앉아 있다. 위압적인 사자 몸뚱이에 여자의 상반신이 붙어 있는 괴물이다. 동그란 얼굴에는 화장품을 떡칠해 놓았다. 두툼한 입술에는 반짝거리는 루주를 발랐고 눈두덩이에는 검은 아이샤도를 칠했다. 육덕 푸집한 짓가슴은 어깨끈이 없는 검은 비단 브래지어로 가리고 있다. 이 괴물은 헤라 여신과 대립하는 존재다. 한쪽에는 어머니가, 다른 쪽에는 창녀가 있다. 「만약 내 수수께끼에 대다하지 못하면, 너를 죽일거야. 미안해, 자기.」

『신』 4권, 579쪽

「훌륭해, 내사랑. 모두가 실패했는데 너는 해냈어.」 스팅크스는 옆으로 비켜서며 노란 바윗덩어리들 사이로 난 길을 열어 준다. 나는 멀어져 가다가 스팅크스에게 돌아간다. 「전설에는 사람이 답을 찾아내면 스팅크스는 화가 나서 자살하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아닌가?」 스팅크스는 머리를 가로짓는다.

『신』 4권, 586~587쪽

이렇듯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 스팅크스의 모습은 그 직전에 주인공에게 요리를 해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준 헤라와는 정 반대되는 이미지로 나타난다. 또한 주인공이 수수께끼를 풀고 나면 자살하지 않는 모습도 원래 신화와는 다른 모습이다.

2-4. 헤르마프로디토스

헤르마프로디토스는 원래 신화와 같이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의 자식으로 나온다. 『변신이야기』의 ‘살마키스와 헤르마프로디토스’이야기에서 헤르마프로디토스는 반남성, 반여성으로 변하게 된다. 『신』에서도 헤르마프로디토스는 반남성, 반여성으로 등장한다.

「세상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냐. 남자와 여자를 이어 주는 존재들이 있지. 성별에도 제 3의 길이 있어. 내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나에게 물었어. 남자로 키워 줄까 여자로 키워줄까 하고 말이야. 나는 16세 때까지 여자로 컸어. 그러다가 17세에 남자로 변했지. 테스토스테론이 너무 많이 분비되었거든. 나는 장애자가 아니라 특능을 받은 자야. 하나가 더 있잖아. 그런데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지?」

『신』 4권, 510쪽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 『변신이야기』에서는 헤르마프로디토스는 원래 남성이었지만 살마키스와 한 덩어리가 되어 양성을 갖게 된 것인데, 『신』에서는 원래 여성이었다가 남성을 함께 갖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차이점뿐만 아니라 헤르마프로디토스는 『신』에서 매우 변형된 캐릭터로 나타난다.

헤르마프로디토스는 수술 도구가 실린 카트를 가지러 간다. 나는 가죽끈에 묶인 채 버둥거린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 게임에서 탈락한 후보생 하나를 수술할 때의 일이야. 내가 메스를 들고 다가가자

녀석이 이러는 거야. <뭐 잊어버린거 없어요?> 나는 흑시나 하면서 주사기며 메스를 살펴보았지. 모든게 완벽해 보이더라고. 그 녀석에게 말했다. <아니, 없는 것 같은데.> 그러자 녀석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마취>」

헤르마프로디토스는 웃음을 터뜨린다.

...

「저 수술을 정확히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우선 네 골격을 빼낼 거야. 그것이 세계를 짊어지기에는 좀 작기 때문에 더 크고 튼튼한 골격으로 바꾸는 거지. 그다음에는 팔다리에 근육을 이식할 거고, 여기 허리 부위에 쇠처럼 단단한 힘줄을 박아줄거야. 그래야 세계가 담긴 구체들을 운반할 수 있거든. 보통 구체의 무게는 약 6백 킬로그램이야. 그 정도 무게를 거뜬히 들어 올릴 수 있게 만들어야지.」

『신』 4권, 506~509쪽

이렇듯 헤르마프로디토스는 『신』에서 생체 실험을 하는 괴짜로 나타난다. 『변신이야기』에서 사랑이라는게 뭔지도 모르는 순진한 소년으로 표현되는 모습과는 매우 변형된 것을 알 수 있다. 주인공 미카엘 팽송 또한 생체실험을 당할 뻔 했지만,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다.

아프로디테, 제우스, 스팅크스, 헤르마프로디토스의 예시들을 통해 『신』의 신화는 기존의 신화와는 비슷한 모습도 많이 갖고 있지만 작가의 의도 하에 많은 다른 모습들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결론

결국 미카엘 팽송은 아프로디테, 에드몽 웰즈와 메두사의 동굴에서 만난 오르페우스, 오이디푸스와 함께 더 높은 산의 꼭대기에서 <9>의 존재를 만나게 된다. <9>의 존재는 바로 은하였다. <6>이 뒤집어진 모양, 열린 나선, 외부로 향하는 따스한 순수한 선. 그러나 은하는 <9>위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고 한다. 그것은 <10>의 존재인 우주였다. 하지만 우주 또한 자신 위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고 한다. 그 존재를 알기 위해, 미카엘 팽송과 에드몽 웰즈는 우주에 의해서 우주의 끝에 다다른다. 그리고 그 곳에서 매우 거대한 두 개의 눈을 마주한다. 그리고 깨닫게 된다. 결국 자신들을 존재하게 한 것은 이 ‘두 개의 눈’이라는 것을. ‘두 개의 눈’은 바로 독자의 눈이었다. 주인공인 미카엘 팽송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무엇이 신과 같은가?’ 이다. 미카엘 팽송은 소설 속에서 내내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을 했다. 결국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해답을 얻었고, 그 답은 바로 ‘독자’였다.

『신』 속의 신은 결국 독자가 만든 것이었다. 처음에는 이 결말을 알고 난 후 조금은 허탈했다. 『신』을 읽은 독자들은 결말에 다다르며 제우스 보다 더 높은 존재인 <9>에 대해서 작가가 만들어낸 더욱 대단한 어떤 존재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타나토노트』를 거치고 『천사들의 제국』을 거쳐 『신』으로부터 알게 된 것은 결국, 이 소설 속의 인간 세계, 천사들의 세계, 신들의 세계, 나아가 은하와 우주까지, 이어지는 모든 한 세계가 결국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무엇을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마 모든 예술 작품들도, 문학도, 신화도 봐주고 읽어주는 독자가 있기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이를 신화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본다면, 『신』의 제우스는 처음에는 아무 형상도 없던 신이, 자신의 완벽한 피조물을 모방한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결국 신의 형상은 인간이 존재함으로써 만들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이어서 생각해 보면, 결국 작가는 『신』을 통해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들은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